

2. 99년 연세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21. 99년 연대 여성운동의 모습

① 모두가 동의 하는 여성운동

이론적인 부채와 여성운동의 계대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현상들에 직면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표면적으로 여성억압을 인정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성주의는 그 정치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성의 억압에, 여성이 처한 불평등에 동의한다는 목소리는 무수히 남아있으면서도 실상은 그 어떤 실천도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비슷한 현상을 여성주의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도 페미니즘으로 다 꿰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주제들에 대해 새내기들이든, 남성들이든, 바깥에서 호의적인 친구든 이미 정답지를 갖고 있다. 여성들은 억압되었고, 남성들은 나쁘다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고 있는 어떤 지점에서도 여성의 피해는 아주 자명한 것처럼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운동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영향력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제한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②마녀 사냥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들은 페미니즘이라 불리우는 정치적 발언, 실천, 지식에 언제부터인가 따라 붙기 시작한 '분리주의'라는 꼬리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꼬리표가 여성주의에 대한 근거 없는 표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꼬리표의 무게와 성차별의 자명함 속에서 악순환이며, 일상적으로 불평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학우들과 여성주의자들은 입에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성학 워크샵에서 나왔던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99년 현재 연대 학우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과 판단을 유추해보려 한다. 많은 학우들이 여성학을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이라고 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여성문제가 어느 정도 학내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며 여성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인 변화나 실천의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③더욱 더 에메해지는 '여성주의'

현재 연대 내에 여성주의자들에게 닥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공간이나 제정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여성주의에 대한 언어화 혹은 실물화 작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것이다. 96~97년에 나왔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나 운동의 방식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주의적인 언어를 구축하는 작업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용 또한 여성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성폭력, 여성노동, 매매춘, 미인대회, 성정치의 시리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초기에 '여성주의'를 삶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과 달리 현재 여성운동단위에서 문제제기하는 문제들은 '여성'과 직접적으로만 연관되는 주제로 축소되고 있어 '여성주의'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주의'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것과 '여성주의'를 실물화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 여성운동 단위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학기 동안 '여성주의'와 관련해 학내에서 눈에 보이는 흐름들이 그다지 없었으며, 학내에서 비밀비재하게 일

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것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학기가 되면서 이러한 지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몇몇 자치모임들은 '공간'이라는 화두를 통해 다양한 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성제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여성제' 자체가 학내에 여파를 미친 것에 비해 처음에 의도한 다양성 혹은 새로움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여성제'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얻어낸 것은 말걸기 방식이다. '당신도 기립하십시오'라고 강요하고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의 불편함에 대해 보여주는 방식. 이제는 일상의 불편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자 즐겁게 바라보든 아니면 아예 다른 판을 만들도록 하든 간에 보여주고 이것 또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보론1] 정세분석 I : 여/성/주/의, '일반화된, 너무나 일반화된'

'짜잔'하고 등장했던 여성주의가
어느새 '별 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 요즘에
제대로 '별 것'도 아니게 되었다면 인정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겠지만,
이상한 방식과 모습으로 '별 것'도 아니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① 여성주의의 상품화가 가져온 우리의 일상들.

성차별이 얘기된다.

여성이 음지에서 양지로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주의의 고민의 지점들은 아직도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유행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어느덧 유행이 지난,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성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이 문제의 해결이나 어떤 이해의 증가에서 오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해결 없이 문제제기만 되는 모습에 대한 짜증과 지루함, 그리고 어느정도 나아진 현실에의 만족이 그 원인이 된다. 하지만 차별이나 불평등이란 말이 진부한 것인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성찰이 정도를 매기거나 어떤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품화된 교양 여성주의는 사람들에게 학점 따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22. 11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 - 총여도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

[보론2] 정세분석 II : 여성창조,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여성운동.

① 기독교 여성운동?

먼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여성운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운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나름의 상과 이에 대한 지

여성주의가
여성운동을
하잖아?

향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 매우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 여성운동을 정의한다면, 결국 어디에서나 여성운동은, '운동'은 성립되고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넓은 의미로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여성운동'을 정의한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는, 구체적으로 연세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을 말하는 여성창조 총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 - 보수 기독교 도덕 여성운동 집단들 ; 여성창조 - 이 말하는 여성운동, 즉 기독교 여성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 이 점이 떠오른다. 먼저 '기독교 여성운동'이라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하는 기독교 여성운동'에 대한 구별이다. 이 둘이 같지 않느냐는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일면 비슷하고 나름대로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의 구별은 뚜렷이 존재하고, 또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당장 우리는 총여학사회 선거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정세상의 판단과,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기독교 여성운동'이라 칭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 꼴보기 싫기도 해서이다.

그들의 운동을 기독교 여성운동이라고 '감히' - 사실 말도 안된다 - 부른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 유교 여성운동, 가부장 여성운동도 말이다. 유교 가부장제에도 그 나름의 여성의 상이 있고 이를 주장하지 않는가? 비록 여필종부나 남존여비, 현모양처 같이 어느 한 성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이고 폭력이지만 말이다. 이 말이 생각난다. 작년 선거에서 한 선배가 여성창조를 두고 '여필종부(女必從夫)'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그들이 '여성의' 금연금주, '여성의' 순결을 말하는 것은 일면 '기독교적' - 금연금주나 순결이라는 점에서 - 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권력관계와 가부장제적 폭력을 내포한다. 그들은 비록 당당한 여성을 말할지라도, 그 여성의 상은 - 굳이 남성을 말하지 않고도 - 여성내부에서도 특권적이다.....이게 그들이 남성과 대립하지 않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여성의 상이다.

기독교나 성경 자체가 여성주의적이나 아니냐는 말을 이 좁고 짧은 생각들 속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당장 그들이 진정(?) 기독교 여성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들 대학가라고 교회다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전도만 남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어찌 예수를 말하겠는가?

그들을 기독교 여성운동으로 부르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인정'해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솔직히 인정할 가치도 없지 않은가?

② 여성창조의 활동

이들은 상품화된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딱 맞는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실직여성가장돕기나 여학생 휴게실, 화장실의 환경개선, 그리고 어떤 식으로건 여성취업이나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그 내용이나 동기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이 '여성운동'을 했고 그렇게 보인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들은 비민주적이었고, 학생회에 대한 개입조차도 없었다.

총여 사업에 대한 단상

1) 그런데 도대체 '기독교적'이란 말에서 지적하는 '기독교'란 무엇일까? 결국 길고도 지루한 '종교'라는 지점, 특히 유일신을 주장하고 이원론일 수밖에 없는 기독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록 기독교라고는 어떤 교리나 가르침에서 차이를 보일지라도, 자칭 기독교인들이 신봉하고 내세우는 '기독교적'인 주장들 - 예수천당 불신지옥, 단군에 대한 우상숭배 논쟁, 금연금주, 순결 등 - 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영향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 실직 여성가장 과자 판매
- 여휴 개선
- 금연, 금주 운동



총여가 진행했던 사업만으로도 학우들은 총여가 여성운동을 한다라고 사고있는 측면 심지어 여성제까지 총여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정치/ 복지의 이분법적 사고

- 정치와 복지는 이분법적으로 사고되어서는 안된다. 복지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이다.
- 총여의 이분법적인 사고

비민주적인 총여, 반자치치적인 총여

-두입술, 애도래, 생도를 강제로 철거하다

-여휴에 휴연실을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전체 금연 구역화하는 방안을 택한 총여

-사랑과 용서로 화합이 아니라 통합하려는 총여

명청한 질문 기독교에서 여성운동은 가능한가? (엄신기호 글)

23. 여성행동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여성행동은 '기구가 아닌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의 상과 '여성주의적 자치질서'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2. 총여학생회론

21. 총여학생회에 대한 혼돈

① 강력한 대리자로서의 총여학생회

(강력한 대리자라는 용어 잘못) ex) 76대 총여학.

② 기구가 아닌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

이것이 바로 대립적이지 않다!

③ 멋진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총여학생회

22. 우리가 바라는 총여학생회의 상은?

총여학생회는 어떠한가 하는가?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명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총여학생회를 해야 하는가?

[보론3] 선거에 앞서 : 왜 총여인가? 자치질서와 총여학생회

작년 여성행동 선본 때는 선거 참여 자체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안다. 10대 여성주의 총여의 자치 질서에 대한 고민의 확장의 형태로, '그래 총여를 잡은 다음에 발전적 해체를 하자'는 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맞나?) 그리고 학생회로서 자치질서 실현의 방법으로 '테이블'을 사고하였다.

지금 제1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작년 여성행동의 고민 지점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총여 선거에 참가한다고 해서 자치질서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총여의 상이 불확실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총여의 상은 자치단체도 아니고, 학생회도 아니고, 복지기관도 아니다. 이런 식의 혼재가 나타난 것은 우리의 고민이 적어서가 아니라, 고민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학내의 운동의 지점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혼재는

3.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31. 세기말 현재 연대 안의 여학생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연대라는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32. 세기말 연세에서 어떠한 여성운동이 필요한가?

관념적으로 여성운동이 동의되는 상황. 그러나 실천적인 흐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실천적인 여성주의의 흐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